

제공일자	2015. 10. 22(목)	담당자	오승연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3775-9115)	연락처	3775-9036
		총 4매	

제목 : 보험연구원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(회장: 정중영)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 후원하는 「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?」 세미나가 10월 23일(금)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됨.
-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 1주제 「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」 발표에서 급속한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, 비급여의료비 관리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들을 검토함.
- 김대환 교수(동아대학교 경제학과)는 제 2주제 「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 방안」 발표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.
- 이후 의료계, 학계, 금융당국, 국민건강보험,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.

< 제 1주제: 「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」 >

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은 비급여의료수가 상승에서 기인

- 보험금 지급측면에서 손해율 관리 필요

-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,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증가 추세임.

-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서 급여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37.1%에서 32%로 감소, 비급여의료비 비중은 62.9%에서 68%로 증가함.

*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본인부담액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음.

□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의 증가에 가격요인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.

- 계약건당 지급보험금을 지급률(수량요인)과 지급건당 보험금(가격요인)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, 2009년 이후 지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, 지급건당 보험금은 증가하고 있음.

- 실손의료보험 지급건수는 절대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, 가입자당 의료이용량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*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추이('09년: 12.7%, '12년: 12.7%)

* 지급건당 보험금 추이('09년: 232,308원, '12년: 243,399원)

- 비급여부분에서 의료수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.

- 건강보험 급여부분에서는 수량요소의 기여도가 증가한 반면 가격요소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.

□ 오승연 연구위원은 “보험금 지급 측면에서 손해율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함.

- 지급보험금은 위험보험료와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적정 보험료와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관리가 중요함.

* 손해율=지급보험금/위험보험료, 위험보험료=지급보험금/계약건수

〈 제 2주제: 「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발전 방안」 〉

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비급여의료비 관리 이루어져야

- 지속가능한 의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

-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.
 -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입자의 의료접근성만 악화시킬 수 있음.
- 필수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되어 왔다고 지적함.
 -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비급여의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초래됨.
 - 비급여의료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.
 - 비급여의료의 문제는 의료기관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함.
- 김대환 교수는 “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”고 강조함.
 -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들을 급여화하되 중요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에 의해 급여율을 차등화
 -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를 안정화

□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·사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함.

- 인구고령화 시대에 공보험만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·사 건강보험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